

## 대도시 혁신지구로서 테헤란밸리의 구성요소와 경쟁력 연구

이효선\*

### A Study on the Components and Competitiveness of the Teheran Valley as an Urban Innovation District

Hyosun Rhee\*

**요약** : ICT 산업이 국가경쟁력 성장에 일조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역이 ICT 산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었다. 본 연구는 벤처와 ICT 기업들의 밀집지역으로서 이들 발전에 핵심지역인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테헤란밸리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등장 등과 같은 주변 입지 변화로 잠시 쇠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혁신에 앞장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역으로 재도약 하며 새로운 혁신지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대상으로 대도시 내 새로운 도시형 혁신지구가 등장한 배경과 형성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도시 혁신지구의 지표를 경제적/공간적·물리적/네트워크/인적 자산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내 새로운 도시형 혁신지구로서 테헤란밸리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스타트업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 ICT 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기업과 구성원이 집적된 도시의 혁신지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ICT산업, 혁신지구, 테헤란밸리, 스타트업

**Abstract** : The ICT industry has developed into an industry that generates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olicy to support the ICT industry, initiated by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ated mainly on the Teheran Road of Gangnam-gu in Seoul.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emergence background and formation factors of the new innovation district in the urban area of the Teheran Valley.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novation district in the integrated urban and industrial parks with various facilities and institutions supporting the startup.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the Teheran Valley as an urban innovation district by dividing the indicators of the urban innovation district in the Teheran Valley into economic assets, spatial and physical assets, network assets, and human capital. It also examined the ICT technology leading the innovation and analyzed the implication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Key Words** : ICT industry, urban innovation district, Teheran Valley, startup

본 논문은 저자의 2019년도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졸업(Ph.D., Sungshin Women's University, hsrhee@naver.com)

## 1.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ICT 산업이 국가경쟁력 성장에 일조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역이 ICT 산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었다. 테헤란로에 오피스 공급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어 ICT 기반 기업들이 사용하기 적절한 업무공간이 마련되었고, 그 결과 ICT산업 집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조성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테헤란로 일대에는 당시에 벤처 1세대로 주목받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 관련 벤처 기업들의 입주 시작되었고, 2000년대 초반 ICT 기업들이 활발히 자리를 잡고 있던 벤처 호황기에 대한민국의 ICT 중심지로 주목받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테헤란밸리'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테헤란밸리는 1990년대 이후 ICT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도 서울의 대표적인 ICT 산업 기반 집적지로 평가받지만, 2000년대 초반 벤처열풍의 감소와 경제 악화로 잠시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의 이전으로 테헤란지역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의 위기를 겪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스타트업의 주요 거점 재평가 받으며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지리학에서는 주로 클러스터 이론으로 산업과 기업의 집적에 대해 설명해 왔다, 탈장소화를 기대했던 ICT 기업들이 실제로는 정부 주도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신창호·정병순, 2002), ICT 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은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하게 위치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로 인한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김찬용 외, 2015). 하지만 이러한 기존 클러스터 이론과 관점만으로는 ICT 집

적지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대한 평가나 생산 중심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대도시 서울에서도 규모가 큰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변화과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며 더욱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공간을 위해서는 지리학에서 논의하는 클러스터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클러스터 이론으로만 테헤란밸리의 재도약을 설명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재도약을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s)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혁신지구와 같은 이론은 새로운 유형의 토지 이용으로 등장하여 도시와 지역에서 지식 기반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Yigitcanlar *et al.*, 2008a,b). 혁신지구는 지식 기반 활동과 혁신 기반 활동이 함께 모여 있는 과학 기술단지, 연구 허브, 산업 구역 및 창조산업이 집적한 클러스터와 같은 인접 지역 규모의 공간을 말한다(Pancholi *et al.*, 2014; 2015). 혁신지구는 기존의 일반 산업지구 및 기존의 클러스터와는 다르게 혁신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인적 자본을 강조한다. 특히 혁신선도 기업과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과 함께 집적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며, 다채로운 지식공유와 활발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에 이익이 되고, 이러한 결과는 지역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형 ICT 기업의 입지로 산업의 성장 거점 역할을 하던 지역이 ICT 산업 내의 혁신주체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되고, 입지해 있던 벤처기업들의 사업규모 축소와 입지 이전으로 인해 잠시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ICT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지역으로 재도약하는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 내의 새로운 혁신지구 등장에 관한 배경과 형성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타트업과 이

표 1.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시형 혁신지구 구축요인

| 주요요인 | 세부 요인                | 하위요인                     | 주요요인 | 세부 요인   | 하위요인                   |
|------|----------------------|--------------------------|------|---------|------------------------|
| 형태   | 위치                   | 중심성<br>독특한 환경            | 환경   | 문화 환경   | 공공 공간 및 문화 공간<br>문화 행사 |
|      | 도시 형태와 구조            | 도시 형태<br>도시 공간 구조        |      | 사회적 맥락  | 근무 환경<br>사회적 상호 작용     |
|      | 디자인                  | 도시 디자인<br>건축 설계          |      | 다양성의 수용 | 다양한 커뮤니티<br>공유         |
|      | 편의시설                 | 필수 편의 시설<br>고급 편의 시설     |      | 창의력     | 창조적인 공동체<br>개방 상태      |
| 기능   | 도시 이동성(교통)<br>및 업무연결 | 도시 이동성<br>연결             | 이미지  | 라이프 스타일 | 생활의 걸음<br>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
|      | 토지 이용                | 혼합 용도 개발<br>부동산 가용성 및 가치 |      | 개인의 안전  |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br>안전과 보안  |
|      | 작업 조건                | 다양한 노동 시장<br>전문 네트워크     |      | 장소의 감각  | 장소 부착<br>사회적 응집력       |
|      | 회사 프로필               | 기술 채택<br>지식/ 창조 산업       |      | 정체성     | 확실성<br>브랜드             |

자료: Esmailpoorarabi *et al.*, 2018

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들, 혁신을 주도하는 ICT 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기업과 구성원이 집적된 도시의 혁신지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데이터 및 연구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ICT 산업의 분류체계 및 국내 ICT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 도시 내 산업클러스터와 현대 도시 산업지구인 혁신지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강남구 내에 입지한 ICT 서비스업 기업과 강남구 ICT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에 대한 응답을 AHP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남구의 혁신지구 구축을 위한 핵심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강남구에 입지한 ICT 서비스 기업, 스타트업 지원기관, 벤처투자기관 등의

방문 인터뷰를 통해 강남구가 도시형 혁신지구로 재도약하게 된 요인을 정성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스타트업 구성원들, 창업준비가, 벤처기관 관계자, 공유오피스 입주자 등과 같은 실제 테헤란밸리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적자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본 시스템, 삶의 질 및 장소 특성에 정성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테헤란밸리가 계획된 산업집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혁신지구로서 성장하고 있는지, 대기업 및 대규모 벤처기업의 유출에도 사라지지 않고 재도약하고, 스타트업을 거점으로 새로운 구성이 가능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강남구의 도시형 혁신지구 형성을 위한 주요 요인을 Esmailpoorarabi *et al.*(2018) 연구를 근거로 하여 형태, 기능, 환경, 이미지로 구분하였다(표 1). 이는 Katz and Wagner(2014)나 김형주 외(2017)의 도시형 혁신지구에 관한 연구와는 다르

계 성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 도시, 클러스터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혁신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요인을 중요도 순서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품질 혁신 지구를 평가하고 도시정책가 및 계획가들이 더 나은 품질의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남구 도시형 혁신지구 형성요인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각 요소별 비교 평가를 통해 강남구 도시형 혁신지구 형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도시에서 일어나는 혁신성은 인적자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치만으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요인도 있다. 또한 설문 대상이 ICT 기업 전문가였기 때문에 테헤란밸리 혁신공간의 중요한 요소인 스타트업관련 구성원인 스타트업 기업가들이나 창업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액셀러레이터 관계자,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형 혁신지구적인 면에서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시스템, 삶의 질 및 장소 특성의 정성적이고 질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를 위해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 스타트업지원기관, 스타트업 대표, 종사자, ICT 산업 종사자,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자, 스타트업 준비 단체 등 24명(팀)과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9월 19일부터 11월 22일 까지 약 2개월 간에 방문 인터뷰와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클러스터는 실리콘밸리부터 많은 유럽의 산업지구, 작은 규모의 산업클러스터까지 산업을 이루는 다양한 형태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신창호·정병순, 2001). 이를 바탕으로 테헤란밸리를 규정한다면 기업들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들로 특화되어 있고, 사회적 하부구조의 관련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기관, 정부기관 등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에 주고 있다. 더불어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협력과 경쟁의 공존을 통해 동일한 시장 안에서 경쟁하지만 협력을 이루어 시너지를 만드는 것으로 보아 테헤란밸리는 단순 집적지가 아니라 클러스터 혹은 산업클러스터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혁신적인 환경과 인적자본의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도시형 혁신지구의 테헤란밸리를 모두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클러스터 개념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혁신지구는 지식 기반 활동과 혁신 기반 활동이 함께 모여 있는 과학 기술단지, 연구 허브, 산업 구역 및 창조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와 같은 인접 지역 규모의 공간을 말한다(Pancholi *et al.*, 2014; 2015). 혁신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 및 창조도시는 각자의 개념을 두고 서로 중첩되기도, 차이점을 가지기도 한다. 혁신지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토지 이용이 등장하여 도시와 지역에서 지식 기반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Yigitcanlar *et al.*, 2008a,b). 도시성을 지닌 혁신지구는 제조업 쇠퇴로 인해 경기

표 2. 인터뷰 대상

| 분류         | 기관/내용                      | 인터뷰 인원 |
|------------|----------------------------|--------|
| 협회         | 벤처기업협회                     | 1명     |
|            | 벤처캐피탈협회                    | 1명     |
|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1명     |
| 스타트업 관련    | 스타트업 창업                    | 12명(팀) |
|            | 스타트업 준비                    | 6명(팀)  |
| 코워킹스페이스 관련 | ICT 기술 프리랜서<br>코워킹스페이스 입주자 | 3명     |

침체에 빠진 도시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특정 장소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거나 혁신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집적해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성장하고 확산되는 모델이다(Katz and Wagner, 2014). 이러한 도시형 혁신지구에서는 기업 및 기관과 더불어 네트워크 및 관련 제도와 같이 혁신클러스터를 이루는 주요 구성 이외에도 업무, 거주, 편의, 여가와 같이 공간의 복합적·다목적 사용, 도보 연결성, 공간개방성·접근성을 통한 소통의 원활함 등을 강조한다(Katz and Wagner, 2014).

도시에 집적한 지식기반산업들의 혁신지구 정책 초점이 주로 산업과 투자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산 유치에까지 미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학자들은 산업과 지식 근로자를 함께 육성하고, 유치 및 유지하는 장소 속성에 대해 연구할 것을 장려했다(Glaeser, 2005; Pancholi *et al.*, 2017). 그동안의 혁신지구를 분석하는 속성은 공간적 척도(지역, 도시, 클러스터 등) 조사에 따라 경우가 많았다. 지역, 도시 및 클러스터의 품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본 시스템, 삶의 질 및 장소 특성의 정성적이고 질적인 면을 살펴봐야 한다(Carilo, 2004; Craglia *et al.*, 2004; McCannan, 2004; Esmail-poorarabi, 2018). 많은 학자들이 혁신지구가 형성되는 장소가 다차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혁신 지역 평가를 위한 질적 연구 문헌이 아직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속성들을 혁신지구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장소의 특성에 정성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림 1〉과 같이 테헤란밸리 혁신지구는 클러스터적 속성-혁신지구적 속성-창조도시적 속성을 모두 한꺼번에 나타내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경제지리이다. 특히 테헤란밸리를 도시형 혁신지구로 보기 위해서는 기존 혁신지구 이론과 더불어 연관다양성, 스마트시티 및 리빙랩과 같은 창조도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테헤란밸리 혁신지구는 산업이 집적한 산업클러스터, 혁신창출을 위한 혁신공간, 다양성 기반의 인적 자본과 창조계급을 통한 도시 창조성을 강조하는 공간이라는 점으로 도시형 혁신지구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테헤란밸리는 자생적으로 혁신기업들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기업과 기관 이외에도 업무환경 및 편의시설 등의 복합적 토지 이용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과 공존하며 집적한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강남구 테헤란밸리에는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 ICT 산업 기반 기업들과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클러스터를 이루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과 서로 연계되는 점에서 도시성을 갖춘 혁신지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테헤란밸리는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 ICT 산업 기반 기업과 기관들의 밀집에 그치지 않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창조계급이 혁신을 창출한다는 점이 새로운 혁신지구가 가진 특징과 일치한다.

한 지역 안에서 특정 산업으로 전문화되고, 같은 시장 안에서 경쟁하거나 유사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혁신이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이지만(Porter, 1998) 창조산업은 이와는 다르게 산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업, 문화적 배경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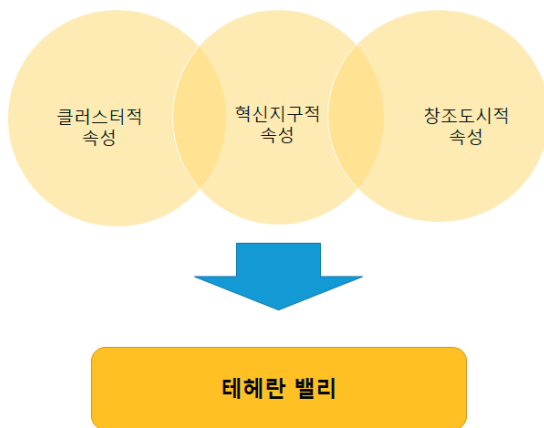


그림 1. 테헤란밸리 혁신지구를 보는 관점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 도시 창조성의 핵심요소로 설명된다(Florida, 2002; Katz and Wagner, 2014). 또한 권오혁(2017)은 Florida(2002)가 설명한 도시가 가진 혁신성, 창조성 등이 특정한 도시에서 고도화되는 점을 강조한 창조도시 개념을 혁신공간의 한 종류로 간주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형 혁신지구를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 기업과 기관들이 클러스터를 이룬 도심지역에서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 산업을 통해 창조계급이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활동하고, 스타트업, 창업, 벤처 활동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고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인적 자원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보았다. 또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에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리적 장소로 교통 접근성이 높은 공간이다.

혁신, 고급 인적 자원, 도시화경제, 융·복합 등이 강조되며 도시 내에 문화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술산업 등이 입지하는 점이 기존에 논의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비슷하나 테헤란밸리와 같이 도시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혁신지구는 자생적으로 이루어졌고, 인적자원들이 혁신주체로서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집적해 있다는 점이 산업단지의 면적, 경계, 구성된 산업과 건물외관까지 정책 및 법률로 계획되고 설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클러스터 이론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산업이 입지되어야 클러스터인지와 같은 규정의 모호함과 한정된 지역에 지리적으로 집적된다는 한계를 보여주고(Bekar and Lipsey, 2002; Martin and Sunley, 2003), 특정 지역에 산업이 집중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클러스터로 인해 창조성 및 혁신성이 저해되고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우려된다(김왕동, 2006). 또한 클러스터 구분은 산업집적, 기업의 네트워크, 수행능력 등 클러스터를 규정하

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한계가 있다(남기범, 2004). 더불어 기업의 양적 증감, 생산성 증감 등을 측정요인으로 이용하여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를 밝힌 연구와 통계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이용하여 클러스터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많지만 혁신주체인 구성원들을 통해 혁신지구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도시 안에서 어떤 혁신요인이 클러스터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ICT 산업 클러스터(집적지)의 혁신성, 개방성, 다양성 등과 같은 특징을 혁신지구적 요인인 경제적 자산, 물리적·공간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 인적자산을 통해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도시성을 갖춘 혁신지구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지구가 아니라 ICT 산업 기반 주체들이 자생적으로 집적하고 있는 테헤란밸리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 내 혁신지구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 3. 테헤란밸리의 공간적 특성 및 산업 분포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외 굴지의 ICT 서비스 기업들과 첨단기술기반 벤처산업 등은 테헤란밸리를 따라 활발히 분포하였다. 특히 2002년까지 테헤란밸리에 벤처기업이 집중되어 입지한 이유는 고객과의 만남, 원자재 구득의 편리함, 많은 인력 수요 등의 이점과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제휴와 협력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중반 1차적으로 벤처기업 및 혁신형 기업이 전국적으로 주춤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며 오피스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교통혼잡,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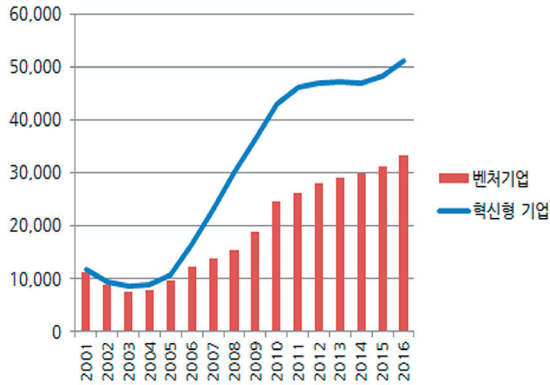


그림 2. 국내 벤처기업 발전의 시기별 변동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혁신형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기업보다 기술 및 경영혁신활동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창우·이명훈, 2011). 아래 <그림 2>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혁신형 기업과 그 중 벤처기업 수의 변동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2000년대 초반에 1차, 2010년대 초반에 2차로 주춤하지만 두 번의 하향세에도 다시 성장세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통계기준과 OECD가 내린 정의를 근거로 하여 ICT 산업을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업 부문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ICT 제조업은 정보전달 및 정보의 표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물리적 현상을 기록하고 측정 및 조사하는 것, 물리적인 공정의 제어를 위해서 전자적인 처리수단이 사용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ICT 서비스업은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 및 시현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특히 <그림 3>을 통해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경우 ICT 산업이 점차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재도약 했으며, ICT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증가세가 ICT 제조업에 감소세인 것과 대조적으로 크게 도약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 테헤란밸리가 스타트업 핵심지역으로 다시 성장하며 ICT 산업 중에서도 과거와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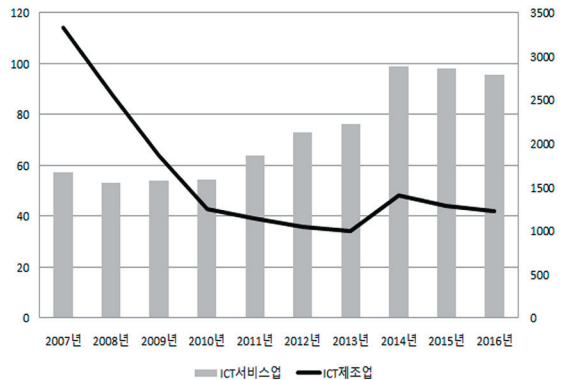


그림 3. 강남구 ICT 제조업, ICT 서비스업 변화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ICT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서울시의 ICT 산업 비중은 우리나라 ICT 기업의 39.1%, 종사자수의 34.1%를 차지하고 있고 ICT 제조업 보다는 ICT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높다. 서울시 ICT 제조업은 전국 ICT 제조업의 3.6%를 차지하고, 서울시의 ICT 서비스업 비중의 경우 전국 ICT 서비스업의 62.9%를 차지한다. 특히 강남구 ICT 산업의 비중은 서울시 ICT 기업체수의 13.9%, 종사자수의 15.9%를 차지한다.

<표 3>을 통해 강남구의 동별 ICT 서비스업의 기업체수와 평균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ICT 서비스업은 테헤란밸리를 따라 삼성1,2동, 역삼1,2동과 논현1,2동에 밀집되어 있다. 가장 기업체수가 많은 지역은 역삼1동으로 215개의 ICT 서비스기업이 입지해 있고 다음으로는 삼성1동이 70개 기업, 삼성2동이 69개 기업으로 역삼1동과는 차이가 크지만 주변 다른 동에 비해 많은 수의 기업이 밀집해 있다.

테헤란밸리에 스타트업이 집중되어 밀집된 요인을 살펴보면 특히 창업초기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벤처캐피탈, 창업육성기관,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이 밀집해 있고 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창업생태계를 이루게 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시설은 강남구에 입지한 수가 가장 많으며, 강

표 3. 강남구 ICT 서비스업 기업체수 (단위: 개)

| 행정동  | ICT 서비스 기업체수 | 행정동  | ICT 서비스 기업체수 |
|------|--------------|------|--------------|
| 신사동  | 36           | 개포1동 | 0            |
| 논현1동 | 54           | 개포4동 | 10           |
| 논현2동 | 61           | 일원본동 | 0            |
| 삼성1동 | 59           | 일원1동 | 3            |
| 삼성2동 | 66           | 일원2동 | 0            |
| 대치1동 | 0            | 수서동  | 11           |
| 대치4동 | 23           | 세곡동  | 7            |
| 역삼1동 | 200          | 압구정동 | 0            |
| 역삼2동 | 42           | 청담동  | 13           |
| 도곡1동 | 13           | 대치2동 | 28           |
| 도곡2동 | 29           | 개포2동 | 1            |
| 합계   |              | 합계   | 656          |

자료: K-REPORT 마케팅 DATA, 2018년 9월

남구에는 서울시의 또다른 ICT 집적지인 구로구·금천구보다 약 19배가 많은 창업지원시설이 위치해 있다. 특히 창업지원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창업투자회사는 강남구에만 자리해 있다(〈표 4〉 참조).

또한 최근 창업환경에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빠질 수 없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 업무 공간을 제공하거나 마케팅 자문, 홍보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공유오피스 혹은 코워킹스페이스 등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신생 스타트업이나 창업준비단계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며, 스타트업 간의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한다.

표 4. 사례지역의 창업지원시설 현황 (단위: 개)

| 지역  | 기업집적 시설 | 비즈니스 센터 | 창업보육 센터 | 창업투자 회사 | 합계 |
|-----|---------|---------|---------|---------|----|
| 강남구 | 5       | 9       | 3       | 77      | 94 |
| 구로구 | 1       | 0       | 2       | 0       | 3  |
| 금천구 | 0       | 1       | 1       | 0       | 2  |

자료: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18. 09. 05 접속)

벤처캐피탈은 창업투자회사나 장래성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하거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투자 받기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창업초기단계에 자본지원을 해주고, 그 위험을 기업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고, 경영지원이나 자금관리, 위기대처 등을 지원해 주는 금융활동이다. 이러한 창업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기관들이 2018년 현재 테헤란밸리에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스타트업의 허브이자 오피스 제공 공간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TIPS타운 뿐만 아니라 민간창업공간 DCAMP, 마루180 등이 테헤란밸리에 위치해 있고, 네이버 엑셀러레이팅 센터, 한화 드림캠퍼스, 구글 서울캠퍼스 등과 같은 민간 창업지원시설 및 벤처기업 지원시설들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2000년대 중후반 주변지역의 ICT 산업 클러스터 발전으로 테헤란밸리가 공실률이 늘어나며 위기를 맞이하는 듯 했지만 ICT 기반의 초기 스타트업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다시 채워지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용으로 테헤란밸리는 혁신성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 4. 테헤란밸리의 혁신지구적 요인 분석

### 1)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혁신지구적 형성 요인: AHP분석

AHP분석으로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형태, 기능, 환경, 이미지측면의 주요요인을 고려하여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표 5〉, 〈그림 5〉). 그 결과 ‘문화 환경’(0.106), ‘다양한 노동시장, 작업 환경’(0.105), ‘도시 이동성(교통) 및 업무연결’(0.096),



‘스마트 서비스, 지식/창조 산업 분포’(0.080), ‘창의력, 창조적 분위기, 새로운 사람,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0.075), ‘위치’(0.071), ‘편의시설’(0.065), ‘비즈니스 네트워크 환경, 사회적 상호작용’(0.064), ‘다양성의 수용(인종, 언어, 소득, 종교, 라이프스타일)’(0.053), ‘토지 이용(부동산 가치)’(0.051), ‘라이

프스타일’(0.049), ‘도시 형태와 구조’(0.048), ‘개인의 안전’(0.042), ‘고유한 이미지, 랜드마크’(0.035), ‘디자인’(0.032), ‘머무르고 싶은 마음, 사회적 응집력’(0.029)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형성하고 있는 세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테헤란

표 5. 세부요인에 대한 종합중요도

| 주요요인      | 세부요인                                     | 중요도   | 순위 |
|-----------|--|-------|----|
| 형태 0.216  | 위치 0.329                                 | 0.071 | 6  |
|           | 도시 형태와 구조 0.225                          | 0.048 | 12 |
|           | 디자인 0.147                                | 0.032 | 15 |
|           | 편의시설 0.299                               | 0.065 | 7  |
| 기능 0.332  | 도시 이동성(교통) 및 업무연결 0.289                  | 0.096 | 3  |
|           | 토지이용(부동산 가치) 0.153                       | 0.051 | 10 |
|           | 다양한 노동시장, 작업 환경 0.318                    | 0.105 | 2  |
|           | 스마트 서비스, 지식/창조 산업 분포 0.240               | 0.080 | 4  |
| 환경 0.298  | 문화환경(공공공간, 문화공간) 0.355                   | 0.106 | 1  |
|           | 비즈니스 네트워크 환경, 사회적 상호작용 0.215             | 0.064 | 8  |
|           | 다양성의 수용(인종, 언어, 소득, 종교, 라이프 스타일) 0.178   | 0.053 | 9  |
|           | 창의력, 창조적 분위기, 새로운 사람,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0.252 | 0.075 | 5  |
| 이미지 0.154 | 라이프 스타일 0.316                            | 0.049 | 11 |
|           | 개인의 안전 0.274                             | 0.042 | 13 |
|           | 머무르고 싶은 마음, 사회적 응집력 0.185                | 0.029 | 16 |
|           | 강남구의 고유한 이미지, 랜드마크 0.225                 | 0.035 |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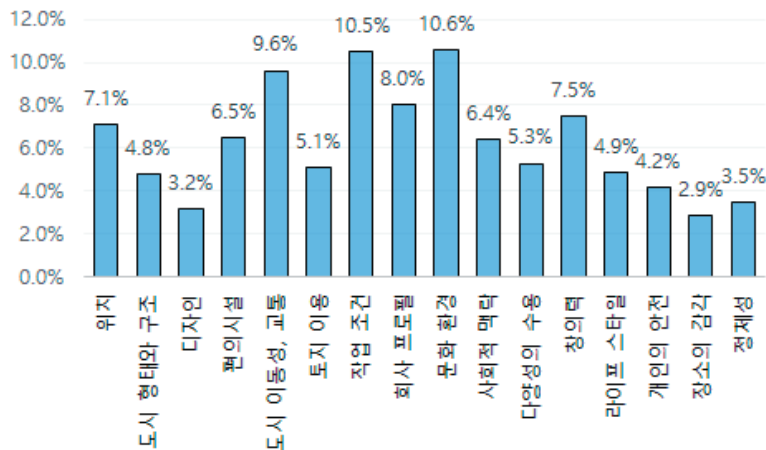


그림 4. 세부요인에 대한 종합중요도

밸리의 환경측면에서 문화 환경이 이루고 있는 환경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회의 장소 등의 공공공간과 극장, 도서관, 전시회 같은 문화 공간, 각종 문화행사들이 문화환경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테헤란밸리에 입지한 많은 업무시설은 테헤란밸리가 혁신지구로서 평가되는 특징으로 다양한 업무지원시설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의 집합으로 일컬어지는 강남구의 다양한 문화공간과 문화행사가 테헤란밸리를 혁신창출의 거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눈여겨 볼 것은 '기능'요인의 다양한 노동시장 및 작업환경, 도시 이동성/교통, 스마트 서비스 시설과 지식 및 창조산업 분포의 세부요인들이 종합 중요도에서 2,3,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종합중요도에서 문화환경이 가장 높은 숫자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다양한 노동시장 및 작업환경, 도시 이동성/교통, 스마트 서비스 시설과 지식 및 창조산업 분포 모두 주요요인 간의 중요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순위였던 '기능'요인의 세부요인이다. 이는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기능적인 측면이 도시형 혁신지구로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문적이고 재능 있는 인력의 확보가 가능한 다양한 노동시장과 전문 네트워크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노동시장 및 작업환경 요인은 문화환경과 0.001차이밖에 나지 않는 중요 형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는 강남구 테헤란밸리에 입지한 ICT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인적 자원들이 많이 분포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혁신창출에 의미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도시이동성(교통) 및 업무연결 요인이 중요하게 도출되었는데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많은 노선의 지하철, 다양한 지역과 연결된 시내·외 버스

와 광역버스, 심야버스 등이 오고가는 환경이 혁신창출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 간, 기업과 협회,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결은 많은 네트워크와 지식 이전의 기회가 마련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ICT 기반 기업들이 혁신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혁신지구의 조건이자 강남구 테헤란밸리가 혁신지구로 평가되는 성과측면의 지표였던 혁신기반 기업을 나타내는 스마트 서비스 및 지식/창조 산업 분포 요인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비교적 높은 중요도 도출되었다. 통신기술, 디지털 인프라 및 최첨단 서비스 등의 스마트서비스와 ICT 기술, 미디어 및 디자인 산업, 첨단기술,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 등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어 있는 스마트 서비스 및 지식/창조 산업 분포가 중요하다는 것은 강남구 테헤란밸리가 혁신기반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또한 도시형 혁신지구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지식/창조산업과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요인이 테헤란밸리에서 도시형 혁신지구로서 효과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혁신지구로서의 테헤란밸리: 인터뷰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혁신공간의 중요한 요소인 스타트업관련 구성원인 스타트업 기업가들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액셀러레이터 관계자,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형 혁신지구적인 면에서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시스템, 삶의 질 및 장소 특성의 정성적이고 질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테헤란밸리를 살펴보면 테헤란밸리에 모이는 기업은 ICT 기술이 필수적이고, 기술만큼 필수적인 것이 투자였다.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벤처 혹은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는 창업투자

회사의 대부분이 강남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도 확인하였다. 테헤란밸리에 집중되어 있는 스타트업은 아직 수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벤처캐피탈 투자까지 받기란 쉽지 않다. 이에 맞추어 최근 테헤란밸리는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수익으로 접근하는 기업가가 증가하였다. 벤처 투자는 캐피탈 투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 초기 수익규모가 작을 경우 엔젤투자 혹은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창업지원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그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투자가 중요하다 보니 투자자 가까이 위치하기 위해 테헤란밸리에 위치해 있다는 스타트업도 많았다.

기관에서는 스타트업 관련자들이 테헤란밸리에 찾아오는 경제적 요인으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련된 지원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공간적 요인으로도 포함되지만 보통 창업을 준비하고 교육을 받으며 임대료를 부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점이 경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간적·물리적 자산으로 살펴본 인터뷰에서는 테헤란밸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가가 투자자와 자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갑을 관계나 다름없는 투자자가 있는 곳 어디든 원할 때 찾아가야 하는데, 현재 대다수의 투자기업이나 투자자들은 강남구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빠른 정보를 얻고 기회가 생기면 빨리 접근하기 위해 테헤란밸리에 입지한다고 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요인으로도 이어지는데 기업가와 투자자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즉 투자자의 활동무대가 곧 기업가들과 창업준비인들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또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강점은 교통의 집중이라는 점을 공간적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많은 노선의 지하철, 버스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거주하든 접근이 편리하고 빠르다.

팁스타운, 구글캠퍼스와 같은 공유 오피스이자 창업지원기관의 존재는 창업가들을 자연스럽게 테헤란밸리로 이끌었고,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오피스의 집중된 입지는 스타트업 관계자 혹은 프리랜서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테헤란밸리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이한 것은 창업지원시설이나 공유오피스 등의 입지가 아닌 강남역 주변의 수많은 학원들과 키크스와 같은 24시간 출력센터, 그리고 심야버스에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테헤란밸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 것이다. 항상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해 다양한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학원이 근처에 있는 것이 시간을 활용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한다. 더불어 스타트업 구성원들과 프리랜서, 크리에이터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들의 점심의 생활과 저녁의 생활 환경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수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들에게 낮시간은 고객을 만나고, 투자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라면 저녁 시간은 치열하게 아이디어 싸움이 일어난다. 24시간 카페와 24시간 출력센터, 심야버스는 스타트업 구성원들을 모으기 쉬운 장소이다.

세 번째로 테헤란밸리를 네트워크 자산으로서 살펴본 인터뷰에서는 네트워크는 혁신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사인 IR이 끊이지 않고 개최되고, 소규모의 자생적인 투자자들의 모임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투자검토 혹은 교육기회의 장이 열려있어 언제든지 투자 검토의 기회가 열려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것은 선배기업이 후배기업에 투자하고, 초기에 수익을 낸 사람들이 전문엔젤을 이루어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사례이다. 하지만 협회에서는 기업 간 기술 제휴 혹은 공유와 같은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며, 기술이 기업의

자산이라는 입장이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있어 테헤란밸리의 네트워크 환경은 그들이 테헤란밸리에 있는 이유이다. 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프리랜서들과 기술자들은 강남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오피스 혹은 24시간 카페에 자리를 잡고 있어 구성원들 간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미팅과 접대가 매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스타트업은 아이템이 계속 변하고, 프로젝트마다 구성되는 인력이 다양하고, 회전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행사에 참여해 인맥을 쌓는대거나, 동호회에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접해야 한다. 특히 고용광고를 낼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인력을 구하는데 있어 테헤란밸리의 카페에서 일하는 이유는 같은 공간에서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한다는 동질감을 느낀다는 인상을 심

어주기 위함이라는 스타트업 관계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혁신지구 요인으로 테헤란밸리의 인적자산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결국 말하는 것이 인적네트워크의 중요성이자,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졌다. 스타트업 관련자나 프리랜서들은 대다수가 열린 마음이었다. 테헤란밸리의 개방성, 다양성, 혁신성, 포용성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이들 대부분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또한 ICT 산업은 이제 어떤 산업에서든 기본이 되었고, ICT분야의 스타트업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갖추고 있어야할 당연한 기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가진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기업이나 회사에 속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혼자, 프로젝트 단위로 일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더불어 ICT분야의 기술과 같이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기술은 전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분야와 같은 전문 기술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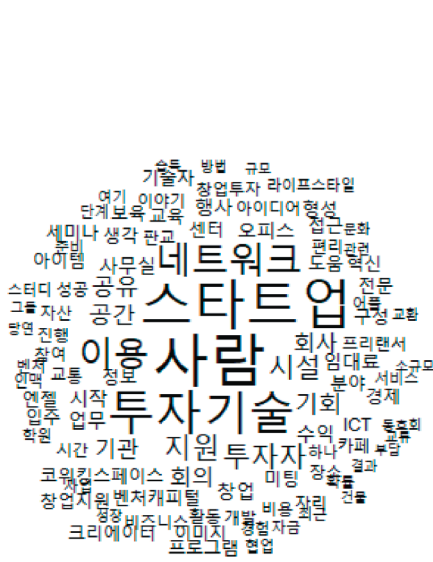


그림 5. 인터뷰 네트워크 지도 워드 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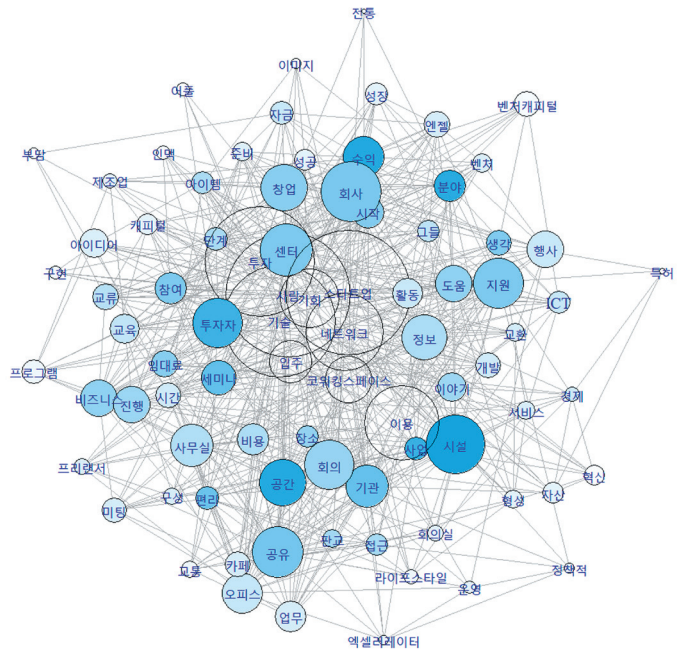


그림 6. 매개중심성을 통한 인터뷰 네트워크 지도

술자들은 석사 이상의 고학력 인적 자원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네트워크 자산과 인적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 인적 네트워크가 곧 이들이 갖춘 기술이자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법 중 하나인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인터뷰 내용의 결과를 보다 정량적인 측면으로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정 노드에서 나타나는 매개 중심성은 해당 노드를 제외하고 남은 다른 모든 노드들의 최단경로의 수와 해당되는 최단경로에 존재하는 특정 노드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사람(1.0/최대), 스타트업(0.73), 투자(0.68), 기술(0.62), 이용(0.60), 시설(0.58), 창업(0.53), 네트워크(0.53), 지원(0.51) 순으로 매개중심성 수치가 0.5이상 높게 나왔다. 이는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혁신지구적 요인에 관한 인터뷰 질문에 강남이라는 장소에서 사람(사람들), 투자, 스타트업(창업), 시설,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그림 5>과 <그림 6>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 코워킹스페이스, 기관, 입주, 네트워크, 공유, 시설, 세미나 등의 단어에 네트워크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강남구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 스타트업, 시설, 지원을 위해 코워킹스페이스, 기관, 네트워크, 공유, 시설, 세미나 등을 중요하게 언급한 것이라는 의미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테헤란밸리를 혁신지구로 보기위한 요인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혁신지구의 핵심 키워드인 스타트업, 네트워크(네트워킹), 지원, 사람, 공유 등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개중심성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코워킹스페이스, 입주, 기관 등의 단어가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가운데 자리 잡으며 기관

에서 제공하는 지원시설이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하고 입주하면서, 스타트업이나 사람(사람들)이 투자를 위한 기회 혹은 사람들을 만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인적자산을 통한 네트워킹으로 만들어진 기회가 스타트업에게 주요 관심사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테헤란밸리를 혁신지구로 설명할 수 있는 공간적·물리적 자산과 경제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 인적 자산을 모두 아우르는 결과로서 각각의 자산들과 중첩되고 있다. 경제적 자산으로서는 사무실, 투자자, (ICT)기술, 수익 등으로 핵심어가 나타나 사무실 비용을 고려하고 투자자의 위치를 고려하는 ICT 기술을 가진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강남구 테헤란밸리에 입지함을 설명할 수 있다. 공간적·물리적 자산으로서는 공간, 공유, 업무, 카페, 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이용 등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용어들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을 공유하는 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의 이용, 카페에서의 업무 등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로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공간적·물리적 특징인 공유시설 이용과 카페 작업 등이 인터뷰 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네트워크 자산으로서는 사람들, 시설, 세미나, 회의, 지원, 행사, 도움, 교류 등이 잦은 빈도와 높은 매개성을 띠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세미나, 회의, 행사 등을 통해 사람들끼리 교류를 중요시 하는 강남구 테헤란밸리 스타트업들의 네트워크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서 테헤란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공간적·물리적, 네트워크적, 인적 자산의 측면을 통해 혁신의 중심인 스타트업의 시스템, 삶의 질 및 장소 특성에 정성적으로 접근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형 혁신지구 요인은 스타트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인터뷰 대상자들은 혁신의 동인이 기업이 아니라 인적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투자를 위해 테헤란밸리에 머물고, 교통이 편리하고,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무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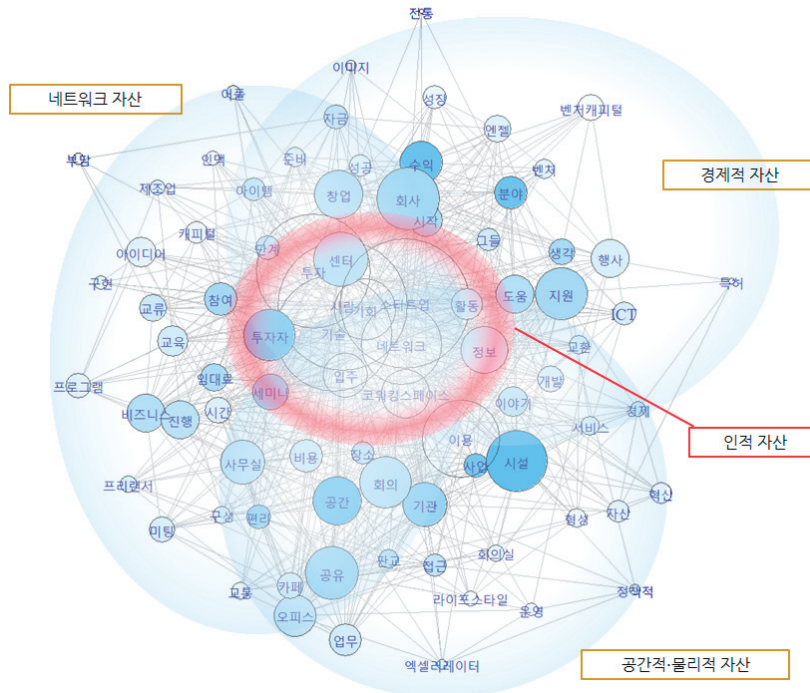


그림 7. 매개중심성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마련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 잘 준비되어있고, 무엇보다 네트워크가 필수인 스타트업에 위한 행사, 장소, 기회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과거 초창기 테헤란밸리의 모습과 비교하여 현재 스타트업의 핵심으로 재도약하게 된 혁신지구로서의 테헤란밸리의 특성과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테헤란밸리가 계획된 산업집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로서 성장하고 있는지, 대기업 및 대규모 벤처기업의 유출에도 사라지지 않고 재도약하고, 스타트업을 거점으로 새로운 구성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강남구 ICT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구조분석(AHP)을 실시하였다. 또한 혁신공간의 중요한 요소인 스타트업관련 구성원인 스타트업 기업가들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액셀러레이터 관계자,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형 혁신지구적인 면에서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시스템, 삶의 질 및 장소 특성의 정성적이고 질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테헤란밸리의 ‘위치’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테헤란밸리의 ‘다양한 노동시장과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점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문화환경(공공공간, 문화공간)’이, 이미지 측면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이 도시형 혁신지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강남구의 필수편의시설 기반과 대중교통을 비롯한 도시 이동성의 편리함,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의 공유가 도시형 혁신지구요인으로 작용하여 테헤란밸리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도시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혁신지구 요인이 스타트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터뷰 대상자들은 혁신의 동인이 기업이 아니라 인적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인재들과의 융합이 혁신 창출의 촉매제가 되었다. 인적자본은 투자를 위해 테헤란밸리에 모이게 되는데, 무엇보다 네트워크가 필수인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 장소, 기회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형 혁신지구로서 테헤란밸리의 형성 및 성장 요인 분석을 통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 내 혁신지구의 발전에 대해 고찰하였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형 혁신지구를 구성하는 주체 양성은 첨단기술과 지식기반의 기업-기관-연구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이용해 혁신을 창출하는 인적자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업을 구성하고, 기관과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인적 자본들이 혁신을 창출해 내는 요인이므로, 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헤란밸리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주체들인 인적 자원들의 움직임에 의해 기반시설 및 혁신공간이 형성되었고, 혁신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기관 및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 인적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테헤란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기회 제공과 같이 혁신지구의 핵심 주체로서 인적 자원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등이 마련된다면 더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시형 혁신지구에서는 혁신 주체들이 서

로의 매력을 찾아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테헤란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IR이나 세미나, 친목을 위한 모임활동 등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의 능력을 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기술 및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주체들이 이를 활용하고자 모여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혁신지구는 테헤란밸리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스타트업이 이끌고 있다. 테헤란밸리에서 두드러지는 혁신지구로서 모습과 같이 많은 인적자본들과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머물고,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고, 비싼 임대료가 아니어도 다양한 공간이 잘 준비되어 있어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혁신지구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기능과 환경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을 통해 잘 정비된다면 더욱 많은 혁신 주체들이 부담없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 찾아와 새로운 혁신을 창출해 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오혁, 2017,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범위," 대한지리학회지 52(1), pp.55-71.
- 김왕동, 2006, "선진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가상 클러스터 활용방안," 정책연구, pp.1-196.
- 김찬용·이소현·임업, 2015, "서울시 정보통신기술산업의 공간적 집중 패턴 변화,"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3), pp.43-68.
- 김형주·정미애·최해옥·임영훈·고병옥, 2017,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혁신정책의 전략과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남기범, 2004, "특집논문: 지역혁신체계 연구; 클러스터 정책실패의 교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3), pp.

- 407-432.
- 신창호·정병순, 2001, 서울시 IT산업의 집적화 연구,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 신창호·정병순, 2002, “서울시 ICT 산업의 클러스터 형성과 그 발전과정,” *서울도시연구* 3(1), pp.15-33.
- 신창호·정병순, 2002, “서울시 정보통신(ICT) 산업클러스터의 공간적 특성,” *지역연구* 18(1), pp.1-22.
- 이창우·이명훈, 2011, “벤처기업의 공간분포 특성,” *부동산학보* 44, pp.140-149.
- Bekar, C. and Lipsey, R., 2002, “Departmen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s,” *Science* 2, p.4.
- Carrillo, F. J., 2004, “Capital cities: a taxonomy of capital accounts for knowledge cities,”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8(5), pp.28-46.
- Craglia, M., Leontidou, L., Nuvolati, G. and Schweikart, J., 2004, “Towards the development of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the ‘digital’ city,”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31(1), pp.51-64.
- Esmailpoorabi, N., Yigitcanlar, T., Guaralda, M. and Kamruzzaman, M., 2018, “Evaluating place quality in innovation districts: A Delphic hierarchy process approach,” *Land Use Policy* 76, pp.471-486.
- Florida, R., 2002, “The economic geography of tal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2(4), pp.743-755.
- Glaeser, E., 2005, “Review of Richard Florida’s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5(5), pp.593-596.
- Katz, B. and Wagner, J., 2014, *The rise of innovation districts: A new geography of innovation in America*,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 Martin, R. and Sunley, P., 2003, “Deconstructing clusters: chaotic concept or policy panacea?,”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3(1), pp.5-35.
- McCann, E. J., 2004, “‘Best places’: Interurban competition, quality of life and popular media discourse,” *Urban Studies* 41(10), pp.1909-1929.
- Pancholi, S., Yigitcanlar, T. and Guaralda, M., 2014, “Urban knowledge and innovation spaces,” *Asia Pacific Journa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8(1), pp.15-38.
- Pancholi, S., Yigitcanlar, T. and Guaralda, M., 2015, “Place making facilitators of knowledge and innovation spaces: insights from European best pract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Based Development* 6(3), pp.215-240.
- Pancholi, S., Yigitcanlar, T. and Guaralda, M., 2017, *Place making for innovation and knowledge-intensive activities: The Australian experienc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 Porter, M. 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pp.77-90.
- Yigitcanlar, T., O’Connor, K. and Westerman, C., 2008a, “The making of knowledge cities,” *Cities* 25, pp.63-72.
- Yigitcanlar, T., Velibeyoglu, K. and Martinez-Fernandez, C., 2008b, “Rising knowledge cities: the role of urban knowledge precincts,”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12(5), pp.8-20.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data.seoul.go.kr](http://data.seoul.go.kr)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케이리포트 [www.kreport.co.kr](http://www.kreport.co.kr)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http://kosis.kr)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kostat.go.kr](http://sgis.kostat.go.kr)
- 교신: 이효선,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전화: 02-920-7137, 이메일: hsrhee@naver.com
- Correspondence: Hyosun Rhee,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2 Bomun-ro 34dagil, Seongbuk-gu, Seoul 02844, Korea, Tel: 82-2-920-7137, E-mail: hsrhee@naver.com

최초투고일 2019년 9월 6일  
수정일 2019년 9월 24일  
최종접수일 2019년 9월 27일